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윤리성 및 장래성



한경보 우리협회 회장

■ 서언

1994년 10월 21일의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의 어이없는 붕괴사고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실공사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었다. 그 외에도 청주 우암상가 붕괴(93. 1. 7), 구영동고속도로 진입 육교붕괴(90. 12. 17), 종암동 육교붕괴(94. 11. 20)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의 주된 원인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실패로 인한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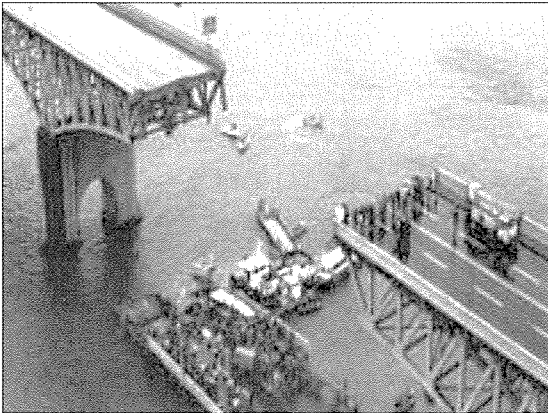


사진 1. 성수대교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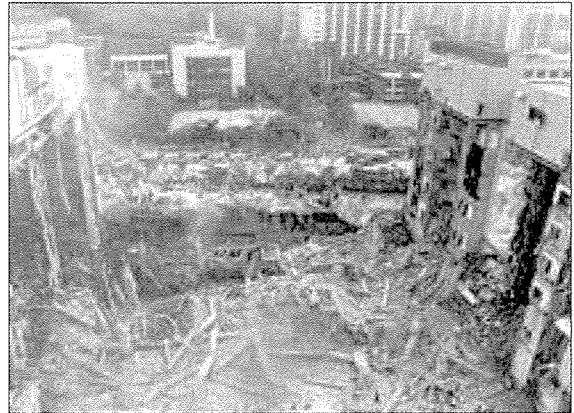


사진 2. 콘크리트 붕괴

대표적으로 성수대교 사고 직후 대한토목학회 성수대교 사고원인 조사반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고가 사고당시 기술축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공법을 사용하여 설계, 시공, 감리 및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성수대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건설 현장에서의 많은 실패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트러스 구조물에서의 용접과정은 매우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부실시공이 이루어 졌던 것이다. 또한 설계상에서는 기계용접을 해야하는 곳에 실제로는 수동용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건설기술자의 도덕성 및 윤리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고 사례이다.

또한, 삼풍백화점의 경우 냉장고 및 조적벽과 돌정원 등의 설치와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냉각탑 설치로 하중이 과도하게 실린것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배합수가 과량으로 함유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약해졌고, 지하층의 설계변경 및 지반의 불안정으로 건물에 뒤틀림 현상도 발생했으며, 각 부재를 연결하는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못하고 코아와 슬래브 사이가 약해 붕괴된 것으로 사고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술적인 문제보다 건설기술자의 안일한 태도 즉 적당주의와 안전 불감증을 들 수 있어, 본 고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도덕성 및 윤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건설기술자의 도덕성 및 윤리성

최근 한 연구소가 일반국민들과 건설업체 종사자들의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 조사.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국민경제 기여도, 사회적 공헌도, 장래성, 종사자 호감도 및 도덕성, 윤리성 중 국민경제 기여도, 사회적 공헌도 및 종사자 호감도는 제조업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장래성과 도덕성에서는 건설업이 제조업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덕성은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건설업체의 비도덕성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하다보니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점점 더 확대되어 건설업체가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만 결과가 되어가고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업계의 경영실태의 부진과 이로인하여 부도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는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데 따른 동조 현상일 수도 있으나, 보다 중요한 요인은 우리 건설업계의 비투명성이 초래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건설업 면허의 개방과 국내 건설시장 개방 등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업계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한층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건설기술자의 도덕성 결여 원인

건설기술자의 도덕성 결여 원인을 들자면 많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로 건설기술자의 적당주의와 안전 불감증을 들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철저한 시공과 감리, 조사를 통해 완벽한 건설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기 보다는 대충하더라도 빠르게 마무리 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일예로 겨울철 시공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콘크리트 붕괴사고를 들 수 있다.

콘크리트의 경우 부어넣기 이후 양생의 중요성을 모르는 기술자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무리한 공사기간을 맞추다 보면 기본을 지키지 않고 적당주의에 빠져 부실시공을 하였을 시 안전사고로 이어져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또한, 눈가림의 형식으로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와 건축자재의 비용을 아끼려고 저급의 재료 사용 및 구조적으로 불량한 재료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어 건설업종사자를 바라보는 시야는 점점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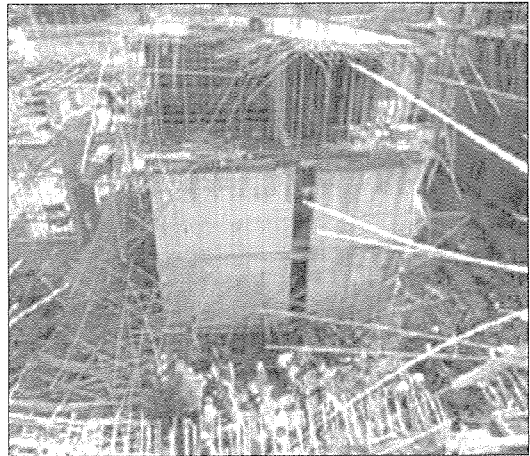


사진 3. 콘크리트 붕괴

그러므로 건설기술자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도덕성 및 신뢰성이다. 건설기술자의 업무에는 기획, 조사, 타당성 분석, 설계, 감리지원, 시공지원, 유지관리기술의 개발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쳐 그 역할이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의 상당부분이 기획, 조사, 설계 등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제공한 기술도 해외에서 사용중인 기술의 모방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독자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건설기술자의 도덕성 및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은 둘째로 건설하도급 부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제 1항에서는 원도급자가 공사를 수주한 뒤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다른 건설업자에게 당해 공사를 그대로 전매하거나,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한 것으로 위장한 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른바 품떼기로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공사를 전매하거나 저가 수주한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 건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시공을 전

혀 하지 않고 전매 또는 일괄 하도급하여 부당한 이윤의 창출이 가능하므로 공사의 수주 및 하도급 관련 부패가 빈번히 발생되고 이는 곧 소비자의 몫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중계약서의 작성과 허위 계약등 건설기술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 결론

건설업이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는 창조하는 즐거움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장래성이라는 한 통계 조사자료를 본적 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는 최근 들어 갖가지 대형 안전사고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잃게 되어 그 경제적 성취가 무색해지고 있다. 최고급 상품을 팔던 대형백화점이 붕괴하고, 엄청난 규모의 지하 가스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설계수명을 한참 남긴 대형교량이 붕괴하는 등의 세계적 뉴스거리들을 제공하는 '안전불감사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수습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 더 이상 이에 대한 왈가불가 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건설업계의 관행이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 시장개방의 가속화, IMF구제금융 도입 등은 향후 건설산업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더욱 빠르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기업 자원능력변수인 자기자본 비율, 기술자 비중 및 전문화 등이 더욱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또한 대기업들도 앞으로는 더 이상 로비력과 업계 자율조정 능력이 경쟁요소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듯 우리 건설업 분야는 많은 문제점과 기대심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장차 건설업계의 한 일원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우리 건설인의 과거의 안일한 자세는 버려야 한다. 나아가 건설기업체도 과거의 관행에 종속될 것이 아니라 좀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연구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그 기업을 이루는 건설인이 동시에 '건설 투명성'을 직시할 때, 국민이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건설업계의 창조성, 미래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건설기술자의 도덕성 및 윤리성 또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